



고성교육지원청 주간소식

### 2011년 장애인 인권교육 연수회



0... 고성교육지원청(교육장 김경로)은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1박2일간 서울 일대 아인스월드 등 3개소에서 2011학년도 사랑의 징검다리 운동 '한길 통합캠프'를 개최했다.

이번 캠프는 관내 특수교육대상 학생 및 통합학급 학생 32명과 인솔교사 13명이 참가해, 현장체험학습을 통해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력과 자립심을 배양하고, 더불어 사는 삶의 소중함을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캠프에서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문화유산과 유네스코 10대 문화유산, 현대 7대 불가사의 등 세계 25개국의 유명건축물들이 1/25로 축소·전시돼 있는 미니어처 테마파크 아인스월드를 체험했다.

또 학생을 대상으로 스스로 본인이 원하는 현실 세계의 직업을 체험하며 주인이 되는 직업체험 테마파크인 키자니아를 체험하고, 마지막으로 코엑스 아쿠아리움을 관람했다.

고성교육지원청은 이번 한길 통합캠프가 장애·비장애 학생이 다양한 체험을 통해 상호간의 벽을 허물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했다. 최광호 기자

### 죽왕초 제2회 자율컨설팅 개최



죽왕초등학교(교장 김상훈)는 지난 6일 오후 1시30분 교무실에서 전 교직원이 모인 가운데 '나는 변화하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제2회 자율컨설팅을 개최했다.

이날 컨설팅에서는 아이들이 자신과 세상을 긍정적인 마음과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교육하고, 교사로서의 내 모습은 어떤지 돌아켜 보는 시간을 가졌다. 최광호 기자

### 여름방학 특강 수강생 모집

고성도서관은 이달 15일까지 2011년 여름방학 특강 수강생을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초등학교 1~3학년생과 중학교 1~3학년생이며, 선착순 방문 접수한다.

모집 강좌는 △도서관에서 세계단편소설과 만나다(20명) △동화로 배우는 재미난 영어세상(20명) △고은빛 우리종이 한지로 놀자(20명) 등이다. 최광호 기자

# 미래사회 대비 꿈을 키워요

## 명파초교 특색교육 '꿈자람 발표회' ... 표현력 신장 기여

명파초등학교(교장 전현철)는 지난 2일 다목적실에서 학교 특색교육인 '꿈자람 발표회'를 실시했다.

주어진 여건을 최대한 활용해 다양한 표현력을 신장시키고 미래사회를 대비해 꿈을 키우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이날 행사에서는 5학년 박원상, 함소이, 함현정, 이연주, 임주영 학생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함소이, 함현정, 이연주, 임주영 학생은 자신의 꿈을 발표했으며, 박원상 학생은 파충류 관찰결과 보고서 발표했다. 또 함소이, 함현정 학생은 평소 갖고 있던 피아노 연주 실력을 뽐냈다.

박선애 시민기자



지난 2일 명파초교 다목적실에서 학교 특색교육인 '꿈자람 발표회'가 열렸다.

### 광산초교 전학년 연구수업 실시 ... 교사와 학생 소통

광산초등학교(교장 이태운)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학년 연구수업을 실시했다.

광산초교는 이번 연구수업을 통해 교사들은 학생들이 무엇을 공부하는지 확실히 알 수 있었으며, 학생들은 따뜻한 선생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태운 교장은 수업 후 협의시간에 교육현장에서 좀 더 좋은 수업을 위해 애쓴 교사들에게 맛있는 케익을 제공하며 격려했다.

최광호 기자



## 서울에서 고성까지 11일간 600km 완주

### 재향군인회 주최 '대학생 휴전선·전적지 답사단' 대미 장식

지난 6월 25일 출정식을 갖고 서울을 출발한 '대학생 휴전선·전적지 답사' 행사가 지난 4일 고성 통일전망대를 끝으로 대미를 장식했다.

지난 6월 25일 서울을 출발한 답사단은 '국립 서울현충원-애기봉전망대-도라전망대-김신조1·21침투로-필리핀군참전비-평화전망대-노동당사-말공OP-금성지구전적비-평화의담-편지볼지구전투전적비-을지전망대-백골병단전적비-통일전망대'까지 10박11일간 총 600Km의 휴전선·전적지 답사를 마쳤다.

이번 행사는 대학생들이 6·25전쟁을 상기하고, 휴전선과 전적지를 찾아 목숨바쳐 조국을 지킨 선열들의 희생정신을 본받아 투철한 국가관과 안보관을 정립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 6월 25일 서울을 출발한 대학생 휴전선·전적지 답사단 일행이 지난 4일 8군단 장병들의 환영을 받으며 부대로 들어오고 있다.

지난 5일 오전 10시 8군단에서 열린 해단식에서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박세환 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모두 협동심을 발휘해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휴전선·전적지 답사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120명의 안보역군이 새롭게 태어나게 되었다"며 그간의 노고를 치하했다. 최광호 기자